

Rising Biz & Star | 테이블 5개서 4년만에 4개 매장...한식주점 '락희옥' 김선희 대표

“보쌈과 와인의 만남...분명한 콘셉트가 외식업 성공 비결”

“반입 와인 무료 한식주점으로 홍보 80여 주류 취급...술 매출로 승부수 높은 가격? 최고의 식재료 자부심”

“밥장사나 할까?” 창업을 생각한다면 오래 한 번쯤 머리 속에 떠올리거나 입으로 되내었을 말이다. 외식업, 음식점 경영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창업 업종이다. 하지만 10일 국제청 사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자에서 음식점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10% 밑으로 내려갔다. 혼잡 문화, 최저임금 등 하락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결국 만만치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성공을 쉽게 기대할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거나 스타 셰프가 얼굴마담인 것도 아닌 '락희옥(樂喜屋)'의 성공은 무척 이채롭다. '낮술도 환영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락희옥'은 코키지 프리(반입 와인 무료 허용)를 지향하는 한식 주점이다.

2014년 봄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처음 오픈해 현재 마포 본점을 비롯해 을지로점, 광화문점 등 3개 매장과 타파스를 테마로 한 주점 락희팜까지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불과 4년 사이에 매장을 빠르게 늘린 것도 놀랍지만 모두 직영이고, 밑반찬부터 메인 요리까지 맛을 매장마다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도 대단했다. 흰 머리가 인상적인 락희옥 김선희 대표를 최근 오픈한 광화문점에서 만난 것도 이런 궁금증 때문이었다.

●2014년 창업, 와인 코키지 프리 한식 주점으로 입소문

-2~3년 전만 해도 나름 미식이 술꾼을 자처하던 사람들만 알던 곳인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운영 매장과 규모, 인력은, “2014년 4월 을지로 지하상가 점포에서 테이블 5개로 출발했다. 이듬해 마포점을 오픈했고, 2016년에는 을지로 매장을 확장했다. 지난 해에는 락희팜을 개장했고, 올해 들어서 5월 2일 광화문점을 열었다. 현재 인력은 을지로가 10명이고 그외 마포 6명, 광화문 6명, 락희팜 3명 정도다.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다. 매장을 더 늘릴 생각이 없다.”



락희옥의 오늘을 있게 한 효자 메뉴인 보쌈, 성게알, 김치말이 국수를 소개하는 김선희 대표. 김 대표는 “이 중 발효음식인 김치말이 국수가 숙성 정도에 따라 맛의 편차가 있어 계절과 상관없이 늘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맛을 잡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락희옥을 창업한 과정이 궁금하다. “외식업은 2004년에 시작해 10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으로 다 놓고 나왔다. 이후 1년 정도 낭인처럼 살았다. 을지로 지하에 첫 가게를 연 것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간이라 보증금도 없고 월세가 저렴해서였다. 당시 상권이 열악해 주변 가게들이 다 비어 있었다. 그런 지하에 ‘코키지 프리’ 배너를 내걸고, 손님들이 그곳에서 가져온 와인을 마시자 지나던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 가게 알리는데 무척 고생했을 것 같다. “지하상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때는 아침 출근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가게의 주류 시간은 점심과 저녁이다. 초반에 아침에 나가 1500원짜리 주먹밥을 만들어 팔았다. 이런 브랜드의 가게가 이곳에 있어서 영업하고 있다고 알고 싶었다.”
-와인과 한식이라,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의 가게를 꿈꿨나. “한식에 막걸리나 소주를 함께 하는 건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사람을 놀라게 하고 주목을 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것,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 조화를 이룰 때다. 우리 가게는 와인하면 치즈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와인고 보쌈의 마리아주(와인과 음식의 궁합)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한식당이 취약한 게 주류 매출이다. 밤만 먹고 2차는 다른 곳에 간다. 술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영업의 승부수를 걸었다.” (현재 락희옥은 와인 53종, 맥주 23종, 전통주와 기타술 10여종 등 80여가지 주류를 갖추고 있다)

●가격을 위해 맛을 양보하지 않는다

-솔직히 락희옥에 대한 고객 후기에서 가격에 대한 아쉬운 반응이 적지 않다. “가격은 정직하게 말해 원재료 비용의 3배 정도를 책정한다. 운영비, 인건비를 다 감안할 때 내 기준으로 크게 남는 게 아니다. 가격에 대한 불만은 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재료를 쓰고 대신 금액을 확실하게 받는다

는 방침이다. 외식업에서 원가관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재료값이 올라가면 음식값을 올린다. 국내산에서 수입으로 바꾸거나, 등급을 낮추어 가격을 맞추지 않는다.”
-식재료는 어떻게 조달하는가. 가격 불만은 있어도 재료는 다들 평가가 높다. “식재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거북손의 경우 울릉도 여행 때 처음 맛보고 메뉴에 넣을까 고민할 때 마침 ‘삼시세끼-만재도’편에 나온 것을 봤다. 그래서 거기 어촌계장에게 연락해 지금까지 직접 공급받고 있다. 성게알도 구룡포에 있는 해녀분과 계약을 맺고 직거래로 받고 있다. 보쌈에 쓰는 돼지고기도 껍데기가 있는 국산 냉장육만 선택한다. 수입산은 껍데기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밑반찬부터 간판요리 보쌈까지 매장마다 맛의 편차가 별로 없다. “매장마다 맛이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 구입부터 소스, 김치 담그는 것까지 다 함께 해서 중앙공급을 한다. 보통 오후 10시쯤 자면 새벽 3시쯤 일어나 그날 장소 준비를 해서 매장을 돌며 공급한다. 또한 보쌈부터 차돌박이 구이까지 주요 요리를 계량화, 표준화해 레시피로 만들어 두고 있다. 아침에 출근해 락희팜을 시작으로 마포점, 광화문점, 을지로점 등을 돌며 점심장사 준비를 하고 결제, 거래처관리 등을 하면 오후 3시쯤 끝난다. 그때부터는 개인 일정이니 약속, 미팅을 한다.”
-먹는 장사는 누구나 창업을 생각하지만, 성공은 너무 어렵다. 조언을 해 주면 “식당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고객이 편히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 하나는 확실하게 낮춰야 한다. 그리고 무얼 파는지 콘셉트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요즘 외식업은 먹는 장사가 아니라 의식주 비즈니스다. 손님 만족도에서 입은 20%이고, 나머지 80%는 눈이 결정한다. 그만큼 가게 분위기와 비주얼 등 시각적인 것이 중요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김선희 대표는 개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조심스러워 했다. 본인이 원치 않는데 애써 나이, 출신지역, 학교 등의 틀에 박힌 약력을 소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터.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직접 정리해 보내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받았다. “똥장피가에서부터 절인 청어까지 세상의 모든 미식을 사랑하고, 막걸리에서부터 까이 배리나(브라질 컵티일)까지 세상의 모든 미주를 애정하는 영원한 힙스터 소녀.”

SAFA **비디오** **라디오** **음악** **노래방** **녹음**

유대비용 **중진식** **동영상과 노래방을 내손 안에!**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SAFA**

- ▶ 충전식 휴대용 SAFA 7인치 화면 액정 장착
- ▶ 언제 어디서나 노래방 음원 재생 (마이크만 연결하면 그 곳이 바로 노래방)
- ▶ 언제 어디서나 HD급 비디오, 영화, 동영상 감상
- ▶ 라디오 기능으로 재ନসীমে도 라디오 청취
- ▶ 녹음기능, USB 메모리 사용기능
- ▶ 등산, 낚시, 여행갈 때 야외 필수품

이머시, 남진에서 박현빈, 장운정까지 **1100곡 수록!**

노래방 음원 **1100곡** **노래방 SD카드**

전국노래방 55곡 음원 **신착순 무료증정!** **후의 합송 1,000곡 발매!**

행사기간중 50% 한정 **마이크, AC충전기, USB 스피커 증정**

2018년 **신제품**

● 제품: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플레이어
● 용량: 22GB AC 5V 1A
● 출력: 마이크로 USB (USB2.0) 스피커 4-32dB
● 해상: 1280x800 (HD) 해상도
● AS기간: 구입일 1년

이런 부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히 **발송된 제품은 이미 검정색인 본 제품과 동일합니다**

신상품으로 최고!

서울시당지사: 02-522-2710
통신판매: 2017 서울권 1247호
무통신판매: 1661-1224 입금액: 농협 356-1272-3414-43 김선희 센터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렴함 화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2018년 **최신제품**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사용 10단계 음향조절기능

본 제품은 이르기까지 아닙니다

이런 때 사용하세요

- ▶ 기차, 친구의 대회의 콘서트기 필요할 때
- ▶ TV시청시 방송음을 크게 듣고 싶을 때
- ▶ 직장에서 상의 부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 상에서 생방송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 강이 울려 있어도 강의를 듣고 싶을 때
-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절대 크게 듣고 싶을 때
- ▶ 출근해서 절대 크게 듣고 싶을 때

1회 충전시 24시간 294KHz 사운드
배터리 잔량 확인 27% 이상
하위용량 방지를 위한 내장

3000

KC인증제품

EARPASS Q80 서울시당지사: 02-522-2710

*본 제품은 방화벽이 없습니다. 제품 구입 후 1년 내 발생하는 모든 제품보증 문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통신판매: 1644-2464 입금액: 농협 356-1272-3414-43 김선희 센터

2018년형 **적외선 시계 캠코더**

007스파이

16GB 대용량 최고화질, HD영상 30프레임 동영상 촬영, 동시녹음, 사진촬영 48,000장 불빛이 전혀 없어도 적외선으로 영상을 찍는다!

얼핏 보기에는 영락없는 보통 손목시계이지만 녹음은 기본, 동영상 촬영 및 야간촬영이 가능하며 야간촬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불빛이 없는 어둠속에서도 눈치채지 못하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은 메모리 16기가로 48,000장까지 저장 가능하다. USB로 연결시 이동디스크 인식!

업무상 비밀누출, 녹화가 필요한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증거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쓰레기 무단 투척, 불법선거운동, 환경오염, 계약위반증거자료 불법행위 증거자료등 수집이 가능하다. 평상시에는 손목시계로 사용하다가 언제든 남이 모르게 녹음 및 동영상촬영, 적외선촬영까지 동시에 1회 작동으로 가능하므로 분쟁이 많은 **현대의 필수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월30,000원~월33,000원(신제품)이면 구입가능!
USB케이블, 일반용, 차량용충전기, 등을 증정

문의: 1899-3177 / 02-474-8822

삼륜전동스쿠터 노약자,어르신용

✓디자인 ✓성능 ✓안전성
✓경제성 ✓누구에게도 굿!

2018년 최신품 **최저속도 시속 9~24km까지 3단제어**

T412 안정형 월 165,000원

이제는 삼륜전동 스쿠터로 자유롭게 어딘가 다니세요!

- ▶ 기름이 한방울도 들지 않는다
- ▶ 작동이 간편하다
- ▶ 전·후진이 자유롭다

문의: 1588-4491/02-474-5555

J.O MOTORS (주) 제이디모토즈